

# 광주교육청, 15억대 LED등 교체사업 몰아주기 의혹

## 180개교 특수학급 2880개 특정업체 제품만 구입 일반등보다 3~4배 비싸고 감성조명 효과도 의문

광주시교육청이 18억원대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LED업체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특수학교(학급) 교실 LED 감성조명등 교체 사업을 벌였다. 광주지역 특수학교 2개교와 일반학교 178개교 내 특수학급의 노후 조명기구 2880개를 LED 감성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8억3790만원이 투입됐고, 이 중 LED 감성조명등기구 구입비로 85.5%인 15억7000여만원이 들어갔다.

구매가격은 LED 감성조명등 1개당 55만원이 소요됐다. LED 일반등(12만~18만원)보다 3~4배이상 비싼 제품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감성조명등을 설치해 장애학생들의 주의력 결핍·자기억제력 부족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예능(미술·음악), 언어(국어·영어), 수리(수학·과학) 과목에 따라 조명색온도를 조절하면 학습효과는 높이고 과잉행동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조명등 구매를 조달청 제3차간계약(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한정해 전량 구입했다. 특정업체에 15억7000여만원어치의 물량을 몰아준 셈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달우수제품으로 한정하다보니 특정업체 제품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LED업체들은 감성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10여 곳에 달하는데, 굳이 조달우수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업체는 실적이 미미한 신생업체인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15억 원대의 관급자재 납품을 결정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LED업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물품 구매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1000만원 이상만 돼도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는데 15억 원대 관급자재 납품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업체들이 수차례 제품을 비교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먼저 조달 우수제품 선정돼야 가능하다고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감성조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납품업체의 말만 듣고 광주시교육청이 18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선택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치고는 너무 덩치가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계획을 세워 특수학급에 설치를 마쳤다”며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요” 오는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14일 오후 조선대학교 서석홀 앞마당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캠페인에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울동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골프연습장·승용차서 골프채 수천만원 절도

광주서부경찰은 14일 골프연습장과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풍암동 A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이모(여·45)씨의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골프연습장과 고급 아파트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24회에 걸쳐 시가 57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철관지우개 던졌다 봉사처분 문제 제기 중학생 패소

급우에게 철관지우개를 던졌다가 학교봉사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학교측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4일 중학생 A(14)군이 자신이 다니는 무안 지역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철관지우개와 지우개를 던진 행위는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5월 교실 철관에 자신이 그린 얼굴을 지웠다라는 이유로 B군에게 철관지우개를 던지고 교실에서 떠든다며 지우개를 던져 학교 봉사 5일 등 처분을 받았다.

A군 부모는 개인적인 시비로 발생한 가벼운 사건이고 피해 학생과도 화해해 담임종결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다른 학생 주도로 이뤄진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A군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봉사 처분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빛독촉 여성 살해 주범 눈뜨고 놓친 경찰

## 광주동부경찰 3차례 불러 조사 진술 듣고 풀어줬지만 잠적

경찰이 참고인으로 수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낸 30대 남성이 40대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주요 용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도주했고 경찰은 뒤늦게 공개 수배에 나섰다.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투자자 수천만원을 회수하려 했으며 투자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25)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김모(36)씨를 공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곡성군 석곡면 한 낚시터에서 투자자 A(여·43)씨 등 2명을 살해한 뒤 연산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이후인 8일 김씨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 때까지 김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만 밝혀냈을 뿐 구체적인 혐의 등은 파악하지 못해 돌려보냈다. 두 번째 소환 조사 과정에서 김씨 등이 빌려 타고 온 렌터카에 주목, 위치 추적으로 당시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3번째로 김씨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비로소 이들이 타고온 렌터카에 대한

혈흔 반응검사를 실시, A씨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재차 불렀지만 김씨는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해당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위치 추적과 동시에 혈흔 반응검사를 지속해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김씨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꼼꼼한 조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김씨 도주 이후 자체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야 공개 수배에 나선 데 대해서도 뒷말이 적지 않다.

경찰이 4번째 조사 뒤에 박씨 등 2명을 검거,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코 앞에서 주요 용의자를 놓쳤다는 말이 나온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장성서 동거녀 살해 후 이틀 뒤 공기총 자살

## 장성에서 6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틀 이상 시신과 함께 자택에 숨어 있었다.

지난 13일 밤 10시10분께 장성군 삼서면 2층짜리 주택 안방에서 A(60)씨와 B(여·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시신 옆엔 애완견인 말티즈 2마리가 지치고 있었다.

당시 A씨와 B씨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안방 침대 밑에선 길이 1m·5.0mm 공기총이 발견됐다. A씨의 복부엔 5.0mm 총탄자국이 남아 있었다. A씨의 시신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였으나 B씨의 시신은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B씨가 A씨보다 이틀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

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A씨의 집에서 못 박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등의 진술로 미뤄 사망 추정 시점이 이날 이후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망 추정시기가 사실이라면 A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틀 이상 시신과 같이 지냈다는 얘기가, 이들은 지난 3월초 영광에서 장성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이 발견된 집은 A씨 등이 9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와 B씨가 돈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했다는 지인들의 진술로 미뤄 A씨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 “택시비 현금영수증 쥬” 취객 소동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9)씨는 지난 13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나는 택시 기사의 사과를 받아야겠다. 나를 집어 넣으라”며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것.

○김씨는 두 시간 전 영업용 택시를 탄 뒤 8000원의 요금을 건네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운전기사에게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역전지구대로 향했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경수)

NAVER **단비플라워** 늘려보여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광주·전남 **大山 프리모** 남가발

가능장1호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77억**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광